

자료제공: 2023. 7. 25.(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담당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2133-7645
--------	-----	-----------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2133-7651
--------	-----	-----------

담당자	송인준	2133-7652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 쪽

관련 누리집 (메뉴)
----------------

<https://animal.seoul.go.kr/>

### 서울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선제 방역 철저

-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접수(7.24일) 후 즉시 현장 방역소독 및 출입 통제 중
- 시설내 남은 2마리 고양이는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며 건강 상태 양호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에 따라 반경 10km 방역대 설정, 감수성 동물 관리 철저
- 서울시 전체 동물보호시설내 고양이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7.28일까지 완료 예정
- 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음

□ 서울시는 지난 7월 24일 고양이 보호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과 출입 통제를 완료하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시는 7월 24일(월) 18:30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의심 신고를 통보받은 즉시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물 전체 방역 소독하였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함.

□ 또한 시설 내에 남아 있던 고양이 2마리의 비강(콧구멍)과 구강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마리 모두 A1바이러스 음성이었다.

○ 고양이 2마리는 임상증상이 없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

□ 고병원성 A1이 발생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동물이나 물품의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동 제한 및 출입 제한을 실시중이다.

□ 또한, 서울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지 인근 10km안의 방역대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감수성 동물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시설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도 강화하였다.

○ 반경 10km내 예찰 지역에는 18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고병원성 A1이 발생한 동물이 ‘고양이’임을 감안하여 서울시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입양센터 19개소에 있는 고양이 전수를 대상으로 A1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시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7월 27일까지 검체 채취를 완료하고 PCR 정밀검사를 7월 28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 시는 현재까지 고양이에게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드물고 고양이에서 인체로 감염된 사례가 없으니,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나 분변을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 유명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시민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